

항아리: 자기실현을 향한 변형의 공간 Jar: The Space of Transformation to Self-Actualization

곽 수 경*

Soo Kyung Kwak

<Abstract>

The image of the jar has emerged in various cultural contexts. The purpose of our study is to understand its symbolic meaning. We examined it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This involved an analysis of the manufacturing procedure and function. We also studied stories of jars such as *Sikjang* Mountain folktale and the Marriage at Cana of the New Testament, and the architectural works related to Buddha's Sarira. We find that it serves as a symbol of the space in which the psyche can achieve self-actualization.

Key words : jar, symbolism, transformation, self-actualization, ego-self axis

* 마음결집터 모래놀이심리상담실 상담사 (zskwak@naver.com)

I. 서 론

조선시대의 백자 달 항아리는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정서가 가장 성공적으로 표현된 예술 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윤용이, 2000). 달 항아리는 크기가 큰 항아리이기 때문에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든 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만든 사람에 따라 둥근 형태가 각각 다르다. 달 항아리에 대해 현대 미술사의 거목 김환기는 ‘싸늘한 사기지만 다사로운 김이 오르고, 모두가 흰 빛깔이지만 그 흰 빛깔이 모두 다르며(김환기, 2005)’, ‘단순한 원형과 순백이 복잡하고 미묘하며 불가사의한 미를 발산할 뿐 아니라 고요하기만 한 항아리에 움직임이 있고 속력이 있다(김환기, 1999; 이명애, 2005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김환기는 이러한 상반된 이미지가 통합되어 형성된 아름다움을 포착함으로써 달 항아리를 통해 한국적인 정서를 독자적 조형어법으로 구현시킨 대표적인 화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박영태, 2010).

달 항아리 뿐 아니라 된장을 담그는 항아리에서도 비슷한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식문화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전처리를 거쳐 메주가 된 콩이 일정 기간 동안 항아리 안에 담겨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을 마친 메주는 깊은 맛과 향을 가진 된장으로 재탄생된다. 이 과정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면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숙성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평온해 보이는 그 겉모습과는 달리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 합쳐지는 매우 역동적이고 불안한 과정으로, Edinger(1984/2016)는 이러한 통합의 과정이 십자가의 형벌로 느껴질 만큼 고통스러운 경우가 더 빈번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항아리 안에서 장이 익어가는 모습이 평화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항아리가 그 불안정한 상황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안전하게 담아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부영(2011)은 원형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유형이자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로 설명하고, 원형의 작용은 목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서는 원형이 무의식 속에 배열되며 어떤 형태로든 의식에 나타나 체험된다고 하였다. 원형의 체험은 의식의 일방적인 발달 등으로 인해 의식이 무의식으로부터 분리될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타나며, 우리는 그 존재를 신화나 민담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이부영, 2011). Tuner(2005/2009)도 자아가 적응의 위기를 겪게 되면 무의식에서 원형적 이미지로 상징이 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Kalf(2012) 또한 의식이 무의식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공간이 요구되는데(Kalf, 2012), 위에서 언급한 달 항아리와 된장을 담그는 항아리가 보여주는 통합을 위한 담아주기의 이미지는, 상징으로서의 항아리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되어줄 수 있음을 짐

작하게 한다.

향아리는 상기에서 언급한 담아주기의 상징을 비롯하여, 신성함, 모성과 여성성, 죽음과 부활, 기대와 희망, 성숙과 변형 및 용기 등의 상징을 가지고 있음이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서성희, 2019). 본 연구의 2장에서 다루게 될 향아리의 제작 과정 및 기능 등 향아리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나타나는 상징 뿐 아니라, 3장에서 분석할 식장산의 민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및 사찰의 사리 향아리에서 나타나는 상징도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향아리의 다양한 상징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찾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분석심리학 문헌에서 제시하는 논리에 대입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향아리의 상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식이 무의식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의식을 의식화하고자(Kalff, 2012) 다양한 문화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아리의 상징을 통해 어떠한 무의식이 표현되고자 하였는지 알아보므로써, 향아리의 상징이 다양한 문화 요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II. 향아리의 특성

1. 향아리 제작 과정의 상징성

방병선(2002)에 의해 소개된 향아리 제작 과정에 의하면, 먼저 흙을 물과 섞어서 부드러운 상태가 될 때까지 치댄 후,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잡아 천천히 건조시키고, 이후 약 850-900도의 가마에서 구워낸다. 향아리를 구워내는 가마는 시대마다 그 모양이 차이가 있으나, 전통 가마는 점토나 벽돌로 벽을 쌓은 형태였다. 가마에서 구워낸 초벌 단계에서는 광택을 내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면에 유약을 바른다고 한다.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약 1,250-1,300도의 가마에서 굽는 재벌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향아리라도 흠이 있는 경우 폐기된다. 이렇듯 향아리는 끊임없이 치땀을 당하고, 가마에서 고열에 반복하여 구워지기도 하며, 때로는 아예 깨뜨림을 당하는 등 그 제작 과정 자체로도 죽음으로의 하강과 재탄생을 경험한다.

또한, 향아리의 제작 과정은 흙이 물과 불을 통해 변화하는 연금술적 과정이다. 우선, 지모신 또는 모체(母體)를 상징하는 흙이, 제 1질료이며 우주의 자궁인 물(Cooper, 1978/1994)과 만나 완전히 섞일 때까지 계속 치대어 부드러운 진흙이 된다. 모체를 상징하는 흙과 우주의 자궁을 상징하는 물은 그 상징적 의미로는 비슷하나, 그 물리적 성질은 엄연히 다른 별

도의 물질이다. 이러한 별도의 물질이 함께 끊임없이 치뎀을 당하며 물과 흙의 개별적인 특성이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섞여 부드러운 진흙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여성성을 가진 흙과 물이 만나 부드러운 진흙이 된 후, 도공은 이 진흙을 빚어 성형하여 새로운 모양을 창조한다. 이렇게 창조된 존재는 또다시 변용과 정화, 또는 재탄생을 상징하는 불(Cooper, 1978/1994)과 만난다. 이는 밀폐된 연금술의 용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 기본물질을 씻고 증류하고 정화하여 무거운 물질을 버려나가는 과정이다(이부영, 2002). 가마 안에서 불을 통해 진흙 안에 있었던 불순물이 모두 정화되고 나면, 순수한 여성성의 결정체인 향아리가 만들어 진다.

그런데 이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불과 만나는 장소인 가마에 주목해보면, 가마 역시 흙과 물이 만난 점토 또는 벽돌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성을 가진 흙과 물로 만들어진 가마가 그 안에 불을 일으켜서 스스로를 정화하는 동시에, 흙과 물로 만들어진 향아리를 탄생시키는 장면은 “그는 대지에서 기초를 발견했다. 대지에서 굳건한 기초를 발견하자, 그는 자신을 번식시키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열하여 임신하게 되었다.”는 텍스트에 대해 Neumann(2004/2010)이 설명한 “우로보로스의 모성적인 것은 수태시키는 자 없이 수태한다.”라는 근원적 모성의 성질을 떠오르게 한다. 이러한 근원적 모성이라는 우로보로스의 성질을 가진 가마는, 마치 가마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들이 정화의 과정을 통해 그 성질과 모습이 변형되어 여성성의 결정체로 재탄생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Jung에 의하면 자기(self)는 자아(ego)에 대한 무의식적 예시(Jung, 1958; Edinger, 1972/2016에서 재인용)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창조된 향아리가 수용적인 여성적 상징을 가지는 것(Cooper, 1978/1994)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가마와 동일한 상징성을 획득한 상태로 가마로부터 완벽히 분리되어 나온 향아리는 이상적인 자아-자기 축을 이루어 낸 상징이 된다.

2. 향아리 기능의 상징성

우로보로스의 가마에서 만들어진 향아리는 그릇이 된다. 그릇은 다양한 것들을 보관하고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된다. 향아리에는 곡식이나 기름, 또는 김치나 장과 같은 음식이 담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름으로 사용할 배설물이 담기기도 한다. 고대 문명에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기다리며 죽은 자들의 장기를 담아두기도 하였다. 이렇듯 향아리는 무엇이든 담아둔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적인 여성성의 담아주기 상징을 가지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Cooper, 1978/1994).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이러한 담아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향아리에 담긴 내용물은 그 향아리에서 나올 때가 되면 다른 모습이 되어 있다. 즉, 향아리는 향아리 안에 담긴 내용물이 그 안에 머무는 동안 다른 모습

으로의 변형이 일어나게 하는 기능이 있다. 향아리 안에 콩과 소금이 들어가면 향아리 안에서 숙성이 되어 우리나라 식문화의 기본이 되는 된장으로 바뀌는 것이 이러한 기능의 예시 중 하나가 된다.

향아리가 숙성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향아리가 숨 쉬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향아리는 유약을 발라 구웠기 때문에 물은 차단할 수 있으나 공기는 차단하지 않는다. 즉, 차단하였으나 여전히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본성은 무생물이나 유기체적 요소 또한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금속이면서 액체이고, 물질이면서 정신이며, 차가우면서 뜨겁고, 독이면서 동시에 치유의 약수가 되는 대극의 융합인 ‘현자의 돌’(이부영, 2002)로 표현되는 자기실현을 떠올리게 한다. 자기(self)는 대극을 한 몸에 지니고 있으며, 대극의 존재와 대극의 갈등을 수용하고 체험해 나감으로써 정신의 전체성, 즉 자기에 도달할 수 있다(이부영, 2002). 그러므로 향아리의 대극적 특성이 향아리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담고 받아들여 콩과 소금을 담은 향아리 전체가 자기에 도달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자기에 도달한 결과는 대극을 뛰어넘는 하나의 경지, 즉, 융이 초월적 기능으로 표현한 새로운 의식성의 탄생(이부영, 2002)이며, 이 모습은 콩과 소금이 향아리 안에서 합일을 이루어 초월적 기능으로서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기본이 되는 장으로 재탄생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이상적으로 수행되는 질 좋은 향아리, 즉 대극을 합일하는 자기실현을 달성한 향아리는 이상적인 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향아리 안에서 콩과 소금이 된장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은 Neumann(2004/2010)의 의식 발달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흙으로 만들어진 향아리는 대지의 모성이 될 것이고, 식물인 콩으로 만들어진 후 향아리 안에 들어간 메주는 대지에서 수태되는 식물이 모성에서 분리되지 못한, 신화 속의 남근적 소년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메주를 담은 향아리를 또다시 소금물로 채우는 것은 모성의 상징을 가진 물에 소금을 넣어 태모의 상징을 가진 바다를 만들어내어(Cooper, 1978/1994) 향아리의 여성성을 더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신화의 남근적 소년들은 태모를 위한 다산 의식에서의 희생 제물로 갈가리 찢겨지며(Neumann, 2004/2010), 이러한 신화의 남근적 소년들과 같이 향아리 안의 콩과 소금도 본래의 모습을 잃고 갈가리 찢겨진다. 다산 의식 속에서 남근적 소년들은 찢겨져 죽임을 당하고 다시 태모에 의해 재탄생 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점차 자아와 의식을 무의식과 태모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를 시작한다(Neumann, 2004/2010). 그러나 여전히 남근적 소년이 승리를 얻을 정도로 강해지지 못하는 자괴, 자기훼손으로만 나타난다. 이때 태모의 또다른 특성인 긍정적 모성이 개입하여 부서진 조각들을 통합하고 씌어가는 것에 새롭게 생명을 주어 죽음을 극복하게 한다(Neumann, 2004/2010). 이 과정은 향아리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메주는 향아리와 구분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향아리 안에서 향아리와 결합한 채 존재하고, 향아리 안은 갈가리 찢겨지는 장소가 됨과 동시에 모성이 지켜주는 보호의 장소가 된다. 이렇

게 메주는 갈가리 찢기는 과정과 자기 파괴 및 재탄생을 반복하여 마치 신화 속 남근적 소년이 점차 성인이 되어가듯 점차 새로운 존재로 변형되어 간다. 모성적 항아리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는 존재로의 의식성에 이르게 되면, 이제 메주는 된장으로 그 모습이 바뀌어 있고, 그때 비로소 항아리 밖으로 나오게 된다.

Ⅲ. 항아리가 등장하는 문화 요소

본 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항아리의 분석심리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식장산의 민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및 사찰의 사리 항아리 등 다양한 문화 요소에서 나타나는 항아리의 상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상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항아리의 상징은 '자기실현을 향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담아주는 공간'이며, 이에 대한 각각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식장산 민담

민윤식(2005)이 엮은 민담집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옛이야기 100가지'에서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옥천군 경계에 있는 식장산이라는 야트막한 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옛날에 이 산의 산기슭에 효자 내외가 늙은 어머니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효자 내외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드렸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해가면서 어머니께 차려드린 음식을 아이가 집어 먹는 등 아이로 인해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불편이 생기게 되었다. 효자 내외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어린아이를 산으로 데려가서 땅에 묻기로 하여,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팥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후 땅 속에서 이상한 그릇 하나가 나왔다. 이 이상한 그릇을 들여다보고 있던 효자의 아내는 어머니가 진지를 잡수실 때는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가 어머니가 편히 진지를 드실 수 있게 하면서 어머니께도 효성을 다하고 아이도 살리고 싶다고 눈물로 말했다. 이에 효자도 동의하여 다시 아이를 업고 집으로 왔다. 효자 내외는 땅 속에서 찾은 그 그릇을 잘 닦아서 곡식을 조금 넣어두었는데, 곧 곡식이 그릇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시험 삼아 엽전 몇 개를 그릇에 집어넣었더니 그릇에 엽전도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효자 내외는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하늘이 내린 그릇이라고 생각하여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에만 그릇을 쓰기로 하였다. 이후 효자 내외는 부지런히 일해서 그 그릇이 아니더라도 형편이 점차 좋아졌고, 곧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효자 내외는 결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전히 근면하게 살았으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처음에 마음 먹은대로 그 그릇을 원래 있던 자리에 물었다. 이에 사람들은 효자 내외가 그릇을 묻은 산을 가리켜 식장산, 또는 식기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민담은 현대의 시각으로는 납득되기 어려운 내용으로, 효를 강조하였던 조선시대의 누군가가 교육적 목적으로 지어낸 세련되지 못한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의 의도로 만들어진 이야기였다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민담은 어떤 의식적인 의도를 갖고 누군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가는 대로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거치면서 이야기의 골조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공동 작업이다(이나미, 2010). 그러므로 이 민담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집단 무의식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승되고 있을 것이다.

이 민담을 통해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을 무의식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우선 등장인물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민담의 효자는 용이 말한 친족 리비도, 즉 긴밀한 가족 관계의 태고적 유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Jung; Neumann, 2004/2010에서 재인용). 효자의 늙은 어머니는 태모를 의미한다. 사람은 성장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족을 이룬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일은 안정적인 상태를 무너뜨리고 변화를 이루는 과정인 만큼 불안을 야기하는 작업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예전처럼 태모 안에 머무는 편이 더 쉽게 보이기도 한다. 이는 독립된 자기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우로보로스 안에 머물거나 또는 아예 퇴행하는 개인의 정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퇴행을 선택하는 상징은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에서도 등장한다(이나미, 2010). 나무꾼은 갖은 고생 끝에 결국 하늘로 떠났던 선녀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었으나 마지막으로 늙은 어머니가 주신 호박죽을 먹다 흘리는 바람에 천마가 달아나 결국 아내와 영영 헤어지게 된다. 이 나무꾼은 태모에서 분리되어 나오지 못한 채 퇴행한 정신의 상징으로, 식장산 민담의 초반에 나타나는 효자의 모습과 동일하다.

Neumann(2004/2010)에 의하면, 신화에서는 영웅이 위협에 처했을 때 누이와 같은 여성이 인간적이면서 동시에 전혀 다른 특성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헌신적인 사랑으로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이 민담에서 효자의 아내는 목숨을 걸고 대항하거나 희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효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시각으로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신화에서도 용을 처부순다는 것은 용의 해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과의 동화를 포함하는 것(Neumann, 2004/2010)을 떠올릴 때 이 효자 아내의 공헌이 더욱 명확해진다. 여성 포로의 해방은 처녀나 아내 등으로 표현되는 젊은 모성을 우로보로스적 모성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Neumann, 2004/2010). 젊은 모성의 효자 아내가 무조건적으로 어머니만을 봉양하던 것에서 벗어나 아이와 어머니를 함께 살리는 방안을 제시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순간이 아니마(Anima)를 태

모로부터 끌어내어 태모를 극복하기 시작한 시점이 되었을 것이다. 즉, 모성이 지배하는 위협적인 무의식의 세계에서 분리되어 아니마로 발전한 것이다(Neumann, 2004/2010). 이 순간은 땅 속에 묻혀있던 향아리가 세상에 나오는 장면으로도 표현되었다.

민담에서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아마도 향아리를 발견하기 이전부터 효자 내외는 부지런히 일 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 가난하였던 이전과는 달리 향아리를 찾은 이후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마가 풍성함의 근원이 된다는 분석심리학적 해석과 일치한다(Neumann, 2004/2010). 무엇을 담은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향아리나, 효자의 아내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후 부자가 된 상황은, 향아리와 효자의 아내 모두 풍성함의 근원이 되는 아니마의 상징임을 더욱 명확히 한다.

아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사건, 즉 아니마가 태모에게서 해방되어 나오기 시작한 사건 이후, 효자 아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아이와 어머니를 함께 부양할 수 있었다. 이는 아니마의 담아주기의 도움으로 부권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한다. 부권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남성이 자신에 의해 태어난 자녀들을 자립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Neumann, 2004/2010). 그러나 모성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치 페르세우스가 헤르메스와 아테네의 도움을 받고서야 간신히 거울에 간접적으로 비추어질 때 고르고를 처치할 수 있었던 것 같이(Neumann, 2004/2010), 이 민담에서는 향아리와 아내로 표현되는 아니마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했다. 향아리가 필요한 물건을 담아주며 더 많은 수로 늘리고, 아내가 계속해서 근면하게 일했다는 민담의 내용처럼, 자아의 지속성과 의식의 안정성을 향한 의식의 발달은 아니마의 지속적인 도움 하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식의 발달은 태모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분리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이 민담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써 더 이상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어머니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까지 향아리와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아니마 상징의 향아리는 정신이 독립된 존재가 되어 새로운 규칙을 확립하는 부권 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담아주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끝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원래 있던 땅속으로 되돌아갔다.

2.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는 예수가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공생애의 개시 사건으로, 예수와 제자들이 초대받은 혼인 잔치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혼인 잔치에서는 당시의 혼인 잔치 용품 중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고, 예수의 모친은 그 사정을 알고 아들에게 간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

한다. 이때 예수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되묻는다. 이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전한다. 예수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마련한 돌 향아리 여섯에 물을 채우라고 하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한다. 이를 맞 본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마련해두고 기다렸던 것을 칭찬하였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제도이므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 또는 교회의 연합으로 이해하는 등(Henry, 2006), 분석심리학 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에서 합일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또한 포도주는 피를 상징한다.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 고난을 앞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로, 성경 마태복음 26장 28절 등에서 예수에 의해 직접 설명되기도 하였다. 이 언약의 피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하는 장면에서도 등장한다. 이는 고대로부터 피가 신성한 의미를 가지며 생명과 동일시하였을 뿐 아니라 신성한 힘과 인간 사이에 유대 또는 계약을 만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Edinger, 1972/2016). 즉, 이 이야기의 혼인잔치는 구약에서의 하나님과의 유대와 동일하며, 포도주는 하나님의 유대를 유효하게 하는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경 전체로 보면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금지된 과일을 먹고 에덴동산이라는 자기(Self)의 자궁 안에서 자아(Ego)가 분리되어 나온 이후(Edinger, 1972/2016), 자기로부터 분리된 자아가 동물의 피를 매개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자아-자기 축을 이루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부족한 사건은 이 자아-자기 축을 이루는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포도주가 없으면 혼인잔치를 망칠 수밖에 없듯이, 피가 없으면 계약이 유지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과의 합일이 깨지고 혼인이 망쳐지는 위기 앞에 놓인 신랑신부로, 마치 신화에서 영웅으로 표현되는 주인공이 그러하듯, 주인공들이 주변의 도움을 통해 훼손된 자아-자기 축을 다시 인식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이때 예수는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며 주인공인 신랑신부를 위해 구원의 작업을 대신하는 신성한 인물(Jung; Edinger, 1972/2016에서 재인용)이 된다.

이 기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마치 예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사람인지 요약하여 설명하듯(강선남, 2013), 예수의 첫 번째 기적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에 대한 해결책, 즉 포도주로 상징되는 피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다. Edinger(1972/2016)는 자기(self)를 내면의 경험적 신성으로서 신의 형상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고, 자기실현의 목표는 이러한 자기(self)와의 의식적인 관계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볼 때 예수가 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적대시하며 점차 신과

떨어지고 있었으므로 자기(self)와의 의식적 관계를 손상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자기(self)로부터 자아가 소외되어 자아-자기 축이 훼손되고, 인간이 하나님과 체결한 계약이 효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자, 구원의 작업을 대신하는 신성한 인물인 예수가 그 계약을 유지시키는 피를 항아리를 통해 공급하였다.

Diel & Solorareff(1988)는 이 공생애의 처음 사건에 대해 예수가 유대인의 정결 예법으로 사용되었던 항아리와 물로 표현되는 도덕적 관계를 깨는 것이 예수가 죽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되었고, 여기에는 물과 항아리의 결합을 해체하고 다른 것으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제시하며(정성민, 2003), 이 사건을 공생애의 마지막 사건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연결하였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해야 하는 불안전한 존재로 분석해 왔는데, 이러한 물이 예수의 공생애의 마지막 사건에서 다시 등장한 것에 의구심을 느낄 수 있다. 이를 명료화하기 위해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피와 물을 각각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는 성례전, 즉 초대 기독교 예배 의식과 예수의 생애를 연결시키는 관점(Cullmann; 한승일, 2003에서 재인용)으로 설명하기도 한다(Brown; Carson, 1991/2017에서 재인용). 그러나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를 성찬에서의 포도주로 연결시킨다 하여도 함께 언급된 물까지 세례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는 다소 희박하다(Carson, 1991/2017). 또 다른 의견은 이 사건을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으로, 물은 죽은 자의 피를 약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가만히 두었을 때 분리될 수 있는 투명한 혈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피와 물은 예수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Beasley-Murray, 2001; 김무, 2019에서 재인용). 즉, 죽은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은 예수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객관적 표시 또는 죽음의 결과로 그 이후 새로이 임재한 성령(Schnackenburg; Carson, 1991/2017에서 재인용)의 상징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물은 포도주로 변해야 하는 불안정한 물과는 상징적 의미가 다르며,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새로이 나타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공생애의 마지막 사건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연결한 신학적 관점(Diel & Solorareff, 1988; 정성민, 2003에서 재인용)은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도 동일하게 설명된다. Jung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인간 정신의 진보는 영혼의 고통에서 시작된다(Edinger, 1972/2016). 예수는 물이 변형된 피가 자신의 몸을 깨고 나올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견뎌냈고, 항아리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겪었던 그 고통을 통해 물이 피가 되는 의미있는 변형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변형되었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대극들을 기꺼이 견디고 그림자까지 수용한 결과로, 예수가 고통을 견디고 수용한 끝에 피가 향아리인 몸을 깨고 나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유효하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앞의 신학적 논의에서 언급한 옆구리의 물은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게 된 결과물로서 나타난 성령(Schnackenburg; Carson, 1991/2017에서 재인용)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넣어졌던 만나 향아리에서도 위의 향아리와 동일한 이미지가 발견된다. 이집트에서 나온 후 먹을 것 없이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었는데, 이 만남은 이튿날이면 모두 썩어 버리는, 단 하루만 유효한 음식이었다. 이 만남은 예수가 십자가 고난을 앞둔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한 떡이 연상하게 한다. 만나 향아리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쓰인 돌 향아리는 매일 아침 거두어야 하고 전통에 따라 매번 불결을 씻어내야 했던, 한정된 효력만을 가진 만나와 물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나와 물이, 예수라는 향아리가 고통을 견뎌낸 끝에 그 몸을 깨고 밖으로 나온 시점에서는 한 번의 계약 체결로 이후의 일까지 유효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의 살과 피로 변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의 몸은 만나 향아리와 돌 향아리가 확장된 공간으로, 앞서 남근적 소년이 죽음을 반복하며 그의 몸이 갈가리 찢기는 과정을 지키고 보호한 끝에 강한 힘을 가진 성인으로 변형시켰던(Neumann, 2004/2010) 공간과 동일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3. 사찰의 사리 향아리

이희봉(2012)은 불교 사찰의 단청과 문살에서 볼 수 있는 향아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인도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 향아리는 귀한 존재를 상징하며, 이러한 이유로 힌두신전 지성소 위 첨탑 꼭대기에는 향아리 장식이 있다. 최초의 탑은 열반에 든 부처를 화장하여 남은 뼈와 재를 귀한 존재의 상징인 향아리에 수습하여 8개 부족이 나누어 묻고 봉분을 만든 것이다. 이후 이 분신 유골을 묻은 탑을 숭배하는 것으로 변형되어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우리나라의 사리는 대부분 향아리에 넣어 탑 안에 넣는다. 이러한 사리 향아리의 이미지는 사찰의 단청에서도 발견된다. 그림 1과 같이, 연꽃 모양 받침 위에 석류 모양의 석류동이 있고, 한쪽 끝 터진 곳에서는 향아리라 불리는 공 모양이 반쯤 나와 있으며, 다시 그 끝에는 하얀 점인 민주점이 있다. 석류 끝에서 나오는 것은 흰 알, 즉 생명 탄생의 과정이다. 이 생명은 향아리라고 불리는 공 모양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 공 모양이 부처의 사리를 담은 향아리인 것이다. 즉, 부처의 사리가 마치 알을 깨고 나오듯 향아리를 깨고 나오며 세상 만방으로 퍼져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단순히 귀한 것을 담아두는 기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사리가 알을 깨고 나와 세상에 진리가 전파되는 역동성을



그림 1. 울진 불영사 단청 (출처: 법보신문)



그림 2. 정수사 법당 문살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남해)

갖춘 모습으로 변형된 것이다. 또한, 법당의 문살은 보통 꽃으로 장식되는데, 특별히 그림 2의 강화도 정수사의 법당 문살은 화병에 꽃을 그려 투각한 것을 중심부에 붙여 마치 물이 가득한 항아리에 꽃혀 만발한 꽃처럼 세상에 널리 진리가 전파되는 모습을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이 꽃 항아리는 인도의 불교 뿐 아니라 힌두교, 자인교의 모든 신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한편,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은 자가 지하 세계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가 사망하면 그 시신을 약 70일 정도가 소요되는 복잡한 방부 처리 의식을 거쳐 미라로 만들었다(Ions, 2003). 심장은 시신에 그대로 두었으나 위, 간, 대장, 폐는 카노피 항아리에 보관 하여 미라와 함께 매장하였다. 당시의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지하 세계로의 여행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음식, 옷, 가구, 그림과 노예들의 모형 등도 함께 무덤에 넣었다(Ions, 2003).

고대 이집트인들이 파라오가 죽은 후 향아리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기대하는 믿음은 앞서 언급한 부처의 진리가 향아리에서 나와 세상에 전파되는 이미지와 연결된다. 이를 원시사회의 성인의례 3단계 과정인 고통, 죽음, 재생으로 설명한다면(이부영, 2002), 부처의 진리가 향아리에서 나와 세상에 전파되는 것과 파라오가 부활하여 향아리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고통과 죽음을 극복하고 재생을 달성한, 자기실현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향아리는 이러한 자기실현의 변형이 일어나는 태모의 공간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Neumann(2004/2010)의 의식 발달 과정에 의하면, 향아리 안의 사리와 장기는 태모에 의해 갈가리 찢겨져 죽었다가 재탄생하기를 반복하는 남근적 소년을 상징한다. 향아리는 자기 파괴와 자기 훼손에만 머물러 있는 남근적 소년을 새롭게 만들고, 부서진 조각들을 통합시켜서 씌어가는 것을 새로운 형태가 되도록 생명을 주어 죽음을 극복하게 한다(Neumann, 2004/2010). 부처와 파라오가 죽음을 극복한 것은 성인의례의 마지막 단계인 재생을 달성하고 태모로부터 분리되어 자기실현을 이루게 됨을 의미한다. 향아리가 깨어질 때, 즉 사리가 향아리로부터 나와 민주점으로 등장할 때와 온 세상에 만발한 꽃으로 피어날 때, 또는 파라오가 지하 세계의 열두 개 속주를 안전하게 통과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때(Ions, 2003), 재생과 자기실현이 달성되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향아리의 제작 과정과 향아리의 기능에서 발견되는 상징성 및 이러한 향아리가 등장하는 민담 등을 고찰하여 향아리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향아리는 여성성의 상징을 가진 흙과 물을 재료로 빚어진 후, 점토 또는 벽돌로 만들어진 가마 안에서 불로 구워져 정화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성의 결정체로 변형되어 나온 향아리는 담아주는 기능의 용기(vessel)가 된다. 우리나라의 식문화의 기본이 되는 된장이 숙성되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향아리 안에서는 그 안에 들어온 물질들이 본래의 성격을 잃을 때까지 분해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된 후 향아리 밖으로 나온다. 이 과정은 우로보로스의 자기에서 분리해 나오는 자아에 대한 상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장산 민담과 아울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및 사찰의 사리 향아리에서 등장하는 향아리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식장산 민담에서는 우로보로스의 모성에서 분리되어 나온 아니마를 상징하는 향아리가 그 향아리 안에 정신을 담아줌으로써 정신이 독립된 존재가 되어, 새로운 규칙을 확립하는 부권 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상징이 나타난다.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매번 갱신해야 했던 한정된 효력을 가졌던 물이 단

한 번의 계약 체결로 효력을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피로 변형되는 공간으로서의 항아리의 이미지가 등장하여, 자아-자기 축의 회복을 이룰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리항아리에서는 부처의 사리가 항아리를 깨고 나와 만방에 지혜를 전파하는 모습을 통해 항아리가 자기실현을 위한 변형의 장소가 됨을 드러냈다. 이를 종합하면, 항아리는 자기실현을 향한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보에 필요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간의 정신을 안전하게 담아주는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개인의 정신은 자아가 자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로보로스 상태로 태어난 후, 자기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이와 동시에 자아-자기 축이 완전하게 의식되는 이상적인 자기실현을 향해 발달해 나가는 경향성을 가진다(Edinger, 1972/2016). 그러나 이러한 자기실현을 향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이 분리되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데, 이때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Kalff, 2012). 본 연구에서 밝힌 항아리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정신을 안전하게 담아주는 원형의 모성이 되어 정신이 변형을 이루게 하고, 이후 건강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정신은 자기실현을 향한 변형의 과정에서 담아주기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은 민담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요소를 통해 이러한 상징을 가진 항아리를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선남 (2013). 하느님 선물의 점층적 발전: 율법과 포도주, 성령. 신학전망, 181, 2-39.
- 김 무 (2019).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신원을 드러내는 물과 새로운 파스카. 석사학위논문.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환기 (2005).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서울: 환기미술관.
- 민윤식 (2005).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옛이야기 100가지. 서울: 자유문학사.
- 박영태 (2010). 김환기의 백자 항아리 그림과 <문장>지의 상고주의: 야나기 무네요시와 이태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0, 315-346.
- 방병선 (2002). 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 서울: 돌베개.
- 서성희 (2019). 항아리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연구. 상징과모래놀이치료, 10(1), 109-130.
- 윤용이 (2000).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서울: 학고재.
- 이나미 (2010). 웅,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 서울: 민음인.
- 이명애 (2005). 김환기 회화에 나타난 전통문양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

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부영 (2002). 자기와 자기실현. 파주: 한길사.
-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 C. G. 융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 이희봉 (2012. 2. 8.). “5. 사리는 왜 향아리에 들어있는가?”, 법보신문,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41>
- 이희봉 (2012. 2. 21.). “6. 왜 절에 꽃 향아리 그림이 그리 많은가?”, 법보신문,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9526>
- 정성민 (2003). 요한복음에 대한 융심리학적 상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 한승일 (2003). 요한복음에서의 성례전.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학대학원.
- Carson, D. A. (1991/2017). 요한복음. (박문재 역, 원제: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서울: 솔로몬.
- Cooper, J. C. (1978/1994).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이윤기 역, 원제: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서울: 까치글방.
- Diel, P. & Solotareff, J. (1988). *Symbolism in the gospel of John.* CA: Harper and Row.
- Edinger, E. F. (1972/2016). 자아발달과 원형. (장미경 역, 원제: *Ego and archetype.*) 서울: 학지사.
- Edinger, E. F. (1984/2016). 의식의 창조: 이 시대 융의 신화. (김진숙, 김소영 공역, 원제: *The creation of consciousness.*) 서울: 돈화문.
- Henry, M. (2006). 매튜 헨리 주석: 요한복음. (박문재 역, 원제: *Matthew Henry's commentary.*)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Ions, V. (2003). 이집트 신화. (심재훈 역, 원제: *Egyption mythology.*) 서울: 범우사.
- Kalff, D. (2012). 도라 칼프의 모래놀이: 융심리학적 치유법. (이보섭 역) 서울: 학지사.
- Neumann, E. (2004/2010). 의식의 기원사. (이유경 역) 서울: 분석심리학연구소.
- Turner, B. A. (2005/2009). 모래놀이치료 핸드북. (김태련 외 공역, 원제: *Handbook of sandplay therapy.*) 서울: 학지사.

투고일 : 2019. 10. 19

수정일 : 2019. 12. 09

게재확정일 : 2019. 12. 23